



비취업 문제 해결, 숨은 구직자 발굴부터

전주시정연구원 조사결과
취업 희망 비경제활동인구
발굴·지원과 연결성 부족
시 청장년 비취업자 90%
“전주에서 일하고 싶다”

전주시정연구원이 전주시 청장년층의 비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순한 일자리 부족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고용정책과의 연결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주시 청장년 비취업자 대부분은 전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2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전주시 청장년 비취업자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주시 만 20~49세 인구는 약 25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는 18만2,000여명(71.3%), 실업자는 8,000여명이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6만5,000여명(25.5%)으로 실업자의 8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비취업자 가운데 실업자는 42.2%인 반면,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57.8%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원은 기존 고용 정책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취업 의사가 있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비경제활동인구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전주에 거주하는 만 20~49세 비취업자 563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취업 희망 비경제활동인구의 50.7%는 당장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24.1%는 생애 한 번도 구직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취업 알선을 넘어 취업 준비와 상담, 직업훈련 등을 연계한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과거 일자리 역시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취업자들이 경험한 일자리라는 소규모 사업장과 단기계약, 저임금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생애



전주시정연구원 이주영 연구원이 2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전주시 청장년 비취업자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초 일자리가 계약직이었던 비율은 42%에 달했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76.1%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20대에서 서비스업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가장 최근 일자리에서 이탈한 이유로는 근로 조건과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32.1%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의 근로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신규 취업자의 직장 적응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래산업에 대한 취업 수요와 관련해서는 AI·데이터 분야 희망자가 0.2%로 매우 낮았다. 반면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기존 희망 직무를 완전히 바꾸도록 하기보다 기존 직무에 디지털 활용 역량을 접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여성 구직 단념자의 경우 지인에게 일자리 소개를 부탁하는 등 비공식적인 구직 경로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들이 공식 고용 서비스를 통해 상담과 일자리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령별 취업 희망에도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직업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30~40대는 기존 경력을 활용한 유사 분야 재취업을 선호했다. 특히 30~40대는 경력의 연속성과 일·생활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40대는 유사 분야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의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40대의 창업 수요가 높지만,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관심과 정보 사이의 격차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창업 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기관별로 흩어진 지원 사업과 정보를 연계하고,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주에 대한 지역 정착 의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73.5%가 전주 출생자였고, 전주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는 78.5%로 대다수가 전주인 경우로 76.7%였다. 특히 88.8%는 전주에서 취업하고 계속 살아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장기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다. 지역에 대한 정착 의지는 높지만 일자리 부족이 장기화할 경우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전주시 고용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낮았다. 전주시 청년 고용 정책을 전혀 모르거나 이름만 들어봤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으며, 전주시 고용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45.65점에 그쳤다. 전주를 미래세대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도시로 추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3.45점으로 더 낮은 평가가 나왔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가 실업자 중심의 사후 지원에서 벗어나 취업 희망 비경제활동인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고용서비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복지·가족·여성 지원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접점을 활용해 취업 희망자를 발굴하고, 진단부터 직업훈련과 취업,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지원을 지역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와 연결하는 전주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재직자 지원을 통해 조기 이직과 고용 불안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0대의 창업 및 직업전환 수요에 대응해 창업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기관별 지원 사업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주시정연구원 이주영 연구원은 “전주시 청장년 비취업 문제는 단순히 취업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싶은 조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주시는 신규사업을 확대하기 보다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용·훈련·창업 지원을 지역 수요에 맞게 연결하는 조정자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정연구원 제17호 정책브리프 ‘전주시 청장년 비취업인구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www.jjmae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정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전주 지역 청장년 비취업자의 실태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민호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지역주재기자(김제)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접수기간 2026년 8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 주 매 일

AI로 여는 품질의 미래 전북에서 한바탕 펼쳐다

제52회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 전주에서 개막
전국 우수 품질분임조 314개팀 참가… 성과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AI로 여는 대한민국 품질의 미래, 전북에서 한바탕 펼쳐다’를 주제로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관련사진 3면>

국가기술표준원과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2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전국 시·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 품질분임조 314개 팀을 비롯해 산업계 관계자 등 7,000여명이 참가하며, 전북에서는 15개 팀이 출전한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주부시장,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표준협회장과 전국 산업계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시립국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주제영상 상영, 품질분임조 운영사례 공모전 시상, 분임조 결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참가 분임조들은 현장개선, 안전품질,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AI, ESG 탄소중립 등 18개 부문에서 생산공정 개선과 품질 향상 원가 절감 생산성 제고 등 현장에서 거둔 혁신성과를 발표하며 경쟁을 펼친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빅데이터·AI와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기술을 품질개선에 접목한 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된다.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인 현장 중심의 혁신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대회를 전국 산업현장의 우수한 품질혁신 사례를 지역 기업과 공유하고, AI와 자동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혁신 흐름을 도내 현장으로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민호 기자

축제의 설렘이 팡팡!

김제에 반하다

2026 김제

국가유산 야행(夜行)

달빛 아래 밤의 행진, 깊은 밤, 빛 드리운 길에서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

2026.
9. 18.(금) ~ 9. 20.(일)
김제 관아와 향교 일원

28th 김제지평선축제

The 28th GIMJE HORIZON FESTIVAL

k-농경문화, 지평선에 빛나다.

2026.
10. 1.(목) ~ 10. 5.(월)
김제시 일원(백골제 중심)